

## ‘블록 에칭’ 인쇄기법 개발로 명성



출생 1757년 11월 28일  
 사망 1827년 8월 12일  
 출생지 영국 런던  
 직업 희극 배우, 영화 감독  
 활동분야 문학(영국의 위대한 인물 100인중 38위 차지)  
 주요저서 <결백의 노래> <셀의 서> <밀턴>  
 삽화 단테 등의 시와 구약성서의 <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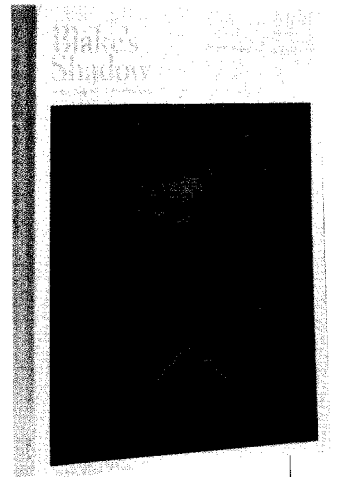
# 윌리엄 블레이크

1757년 11월 28일 런던에서 잡화상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시인, 화가, 판화가, 신비주의자, 낭만주의자였다. 또한 오늘날에는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낭만주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러나 당시 독자들에게는 무시당했으며, 외곬이고 비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미치광이라 불렸다. 블레이크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15세 때부터 판화가 밑에서 일을 배웠으며, 왕립미술원에서 공부한 적도 있다. 1783년 친구의 도움으로 <습작 시집>을 출판하였다. 글과 그림을 한꺼번에 인쇄할 수 있는 ‘블록 에칭’ 기법을 개발, 출판업자로서도 명성을 얻었다.

## 인쇄와 블레이크

그는 1788년 직접 제작한 일러스트레이션에 인쇄(printing)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인쇄기법을 통하여 출판물을 만들었다.

그는 조각가로서 금속판에 부식(에칭)을 시켜 인쇄하는 블록에칭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인쇄기법을 개발 이용하였다. 음각조각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던 예술가들은 일반적으로 와스를 통해 종이의 이미지를 금속판에 등사했다. 그러나 블레이크의 새로운 방식은 등사단계를 생략하고 산에 저항하는 도료로 동판에 이미지를 직접 그려 넣는 것이었다. 그림이 완성되면 그 판을 산성 용기에서 세척하여, 코팅되지 않은 금속은 모두 부식되게 하고, 산에 저항하는 이미지만 판에 양각으로 뚜렷하게 남게 했다. 이 이미지는 옛날 목판화와 마찬가지로 거울 이미지로 되어 있어 직접 잉크를 묻혀 인쇄할 수 있었다.



블레이크는 그의 아름다운 삽화 시집 <순수의 노래>와 <경험의 노래>를 모두 블록에칭 방법으로 인쇄하여 1789년 출판했다.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다.

“만일 화가와 시인의 능력을 결합시키는 인쇄방법이 대중의 주의를 끌 가치있는 현상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아함에서 이전의 모든 방식을 능가하는 것이라면 본 저자는 보상을 받았다고 확신할 것이다.”

화려한 장식을 한 그의 책에서 블레이크는 시와 그림을 동일한 판에 결합시켜서 각 페이지의 인쇄를 한번으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채색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각 이미지는 아내와 함께 손수 색칠을 했는데, 그때 사용한 수채화물감도 그들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그 결과 외형면에서 놀랄 만하고, 기술면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블레이크는 종이 생산을 제외하고는 책 전체를 창조한 것이다.

정신과 자유의 독립을 자신의 작품에 표현한 블레이크는 대중성에 부합하지 않는 책제작으로 수지맞는 예술기업인으로 탈바꿈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꾸준한 출판은 채색을 한 인쇄공정으로 강화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낮은 책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다른 기술적 실험을 통해 그가 1790년 발전시킨 칼라전사 형식을 더욱 확대시켰다.

#### <태고의 날들> 등 삽화 남겨

어릴 때부터 비상한 환상력을 지녀 창가에서 천사와 이야기하고 언덕 위에 올라 하늘을 만진 체험이 있다고 하며,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최초로 표현한 것이 <결백의 노래>(1789)이다. 이 시집은 자연과 인간의 세계에는 순수한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상이 기초를 이루며 <셀의 서>(1789)는 그 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의 결혼>(1790)에서는 스웨덴의 과학자 스베덴보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비판하여 인간의 근원에 있는 2개의 대립된 상태, 즉 이성과 활력의 조화가 새로운 도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결백의 노래>에 나오는 목가적인 동심의 세계는 <경험의 노래>(1794)에서 일단 부정되어 분열되고 투쟁하는 현실세계의 어두운 면이 강조된다. 전자에서는 양의 순진함을 노래하였으나, 후자에서는 밤의 숲속에서 빛을 내는 호랑이의 존재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과 이에 입각한 사회비판은

몇 권의 예언서를 낳았다.

미국의 독립을 노래한 <아메리카>(1793) 이외에 <유럽>(1794) <유리젠의 서>(1794) <4개의 분신>(1795~1804) 등에 서사적 신화가 식각되었고,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중심사상으로 하는 <밀턴>(1804~1808)과 <예루살렘>(1804~1820)이 있다.

인간정신에는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 상징에 의하여 생각하는 영역이 있는데, 블레이크의 신화적 상징은 바로 그러한 원초적 체험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었다.

블레이크는 시 <무구의 노래> <경험의 노래> <예루살렘> 등을 판화로 인쇄했을 뿐만 아니라 단테의 시와 구약성서의 읊기 삽화를 남김으로써 화가로서의 천재성도 보여주었다. 대부분은 동판화로, 손으로 채색한 독특한 색판을 겹쳐 나간 것들이지만, 섬세하고 우아한 선과 함께 독자적인 환상성과 장식성으로 가득 차 있다.

#### 산업사회 현실을 시와 그림을 통해 고발

그는 초기 영화에서 좌충우돌하는 캐릭터를 창조하였고 영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매우 어렸어요. /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나를 팔았어요. / 내 혀가 겨우 청소해요 청소해요 청소해요 청소해요 외칠 수 있을 때에 / 그래서 당신들의 굴뚝을 청소하고 겁쟁 문은 채 나는 잡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굴뚝 청소부’의 한 구절이다. 굴뚝은 산업사회를, 어린 청소부는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상징한다. 왜 말도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굴뚝을 청소했을까.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좁은 굴뚝에 드나들기 쉽고 무엇보다 임금이 싸다. 산업혁명 초기 영국의 노동 현실이 이렇다. 하루 15시간 노동에 식사시간이라야 고작 10분. 굴뚝에서 잠들어 질식사하거나 타죽는 아이들도 많았다. 블레이크는 이런 현실을 시와 그림을 통해 고발했다.

<순수와 경험의 노래> <예루살렘> 등 신비주의 색채를 담으면서도 노동현실을 파헤치는 작품을 잇따라 내놓은 블레이크는 가난 속에서 죽었지만 찰스 디킨스 같은 후배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장법과 아동노동금지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

임남숙차장 sang@print.or.kr

- \*참고자료 \_ 아름다운 책 만들기 북아트 김나래, 임프레스.
- \_ 책, 문명과 지식의 진화사. 니콜 하워드, 플래닛미디어.
- \_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와 사상. 강연. 부산대학교출판부.
- \_ 윌리엄블레이크와 그의 예술적 유산. 서울대미술관

#### 블레이크의 대표작

##### <왼쪽, 태고의 날들>

블레이크의 예언시집인 <유럽>의 권두삽화이다. 수염과 백발을 옆으로 휘날리고 있는 이 존재는 검은 구름 사이로 드라마틱하게 퍼져 나오는 태양빛 앞에서 아두컴컴한 아래쪽을 향해 몸을 숙여 컴퍼스로 우주의 심연을 측량하고 있다.

##### <오른쪽, 양치기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밀턴의 송시 '그리스도 탄생일 아침에'>

밀턴의 송시에 삽입된 두 번째 삽화로 천사들이 밀 구유의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말을 전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화면의 중심을 축으로한 대칭적, 정면적 구도는 이 삽화를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